‘뮤페의 계절’ 광주는 두근두근

지난해 열린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공연 모습. 〈ACC 제공〉

자우림

광주 뮤직페스티벌들 출연진 공개

8월 24~25일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11개국 플라멩코·집시음악 등 선보여
자우림 등 출연 ‘사운드파크’ 오늘 예매시작

매년 큰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공연들이 돌아온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돗자리를 깔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유명하다. 올해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리며 ‘ACC 스테이지’, ‘빅도어스테이지’, ‘뮤직스테이지’ 등 3개의 메인 무대가 마련된다. 또 뮤직라운지, 팝업스테이지, 셀러라운지, 푸드라운지 등도 운영된다.

페스티벌에는 스페인 플라멩코 팝가수 ‘카르멘파리스’와 모로코 대표 여가수 ‘나빌라 만’의 콜라보레이션, 헝가리 민속음악과 집시음악의 하모니를 선사할 ‘손도르고’, 발칸반도의 강렬한 비트와 유럽재즈를 결합한 세르비아의 ‘네이키드’, 플라멩코재즈의 진수를 들려줄 스페인의 ‘아우로라’ 등 총 11개국 18개 팀이 참여한다.

또 ‘더튠’, ‘원일’, ‘큐바니즘’, ‘잠비나이’, ‘나엠’ 등 국내 신예아티스트 11개 팀도 무대에 오른다.

뮤직라운지에서는 월드뮤직 포럼&아시아 전통음악 강연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유물 전시가 열리며 푸드라운지에서는 세계의 먹거리를 판매한다. 빅도어시네마에서는 22일 영화 ‘위플래시’를 상영하고 23일에는 ‘브라보! 재즈라이프’를 선보인다. 24일 예술극장 2에서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음악감독 중 한 명인 원일 감독의 창작 프로젝트와 ACC의 다양한 콘텐츠, 여름 밤 축제의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줄 살사공연, 국내외 뮤지션과 함께하는 어린이뮤직캠프, 해외 음악축제 감독의 월드뮤직 강연, 시민 참여 워크숍, 세계오디오 역사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무료관람. 문의 062-601-4025.

‘2018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도 오는 9월1일~2일 양일간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일원에서 열려 흥겨운 무대로 채워진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사운드파크 스테이지와 피크뮤직 스테이지 두개 무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일 행사에는 ‘장기하와 얼굴들’, ‘몽니’, ‘재주소년’, ‘9와 숫자들’이 사운드파크 스테이지 무대에 오르며 피크뮤직 스테이지에는 ‘전국비둘기연합’, ‘도마’가 출연한다.

2일에는 사운드파크 스테이지에는 ‘자우림’, ‘페퍼톤스’, ‘심규선’, ‘세이수미’, ‘라이프타임’이 올라 관객들을 만난다. 피크뮤직 스테이지에는 ‘최낙타’, ‘아도이’가 등장한다.

또한 관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로 아트마켓과 푸드트럭도 마련된다. 아트 마켓에서는 슬라임, 악세서리 등의 수제품과 캘리그라피 제품, MD를 판매한다. 관객들의 허기짐을 달래줄 푸드트럭은 소소한 간식부터 든든한 한끼를 책임지는 특별한 음식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기하와 얼굴들

티켓은 전년과 동일하게 1일권 3만3000원, 2일권 5만5000원으로 8월 2일부터 인터파크, 네이버, 멜론, 아프로티켓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일주일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한편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사직국제포크음악제’에서 2016년부터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고 장르적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610-3621~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도시공간 문화적으로 기획해야” 광주문화재단 특강

광주를 문화적으로 재편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문화적 기획, 시민이 문화소비자 겸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혁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장인 주정민 교수(전남대 신문방송학과)는 1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민선 7기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정책과 방향’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은 민선 7기 문화행정 진용이 갖춰지면서 광주 6대 문화공약과 혁신위원회 과제들에 대한 소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지역문화 현장과 가장 밀접한 문화재단 직원들에게는 시정방향과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주 교수는 6대 공약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역사박물관, 국악당 등을 건립해 광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체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민 교수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시의 역할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혁신위원회의 현안 중에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전당과 연계한 5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행사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에 문화재단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신수정
화가

걷기 좋은 마을, 양림동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자원을 스토리텔링하고 관과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더해 마을 공동체와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추세다.

내가 살고 있는 양림동도 10여년전부터 정비사업, 개선사업, 문화예술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의미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용했던 마을과 골목이 투기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또 벽화 정도 그려주고 조형물 세우는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각종 홍보 플래카드와 일회성 공연포스터, 간판 등이 골목마다 어지럽게 들어서면서 눈과 귀가 시끄럽기 시작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이제는 내가 사는 동네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고 일상적 삶과 자연 환경, 미래가 어우러지는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양림동은 고즈넉해서 걷기 좋은 곳이다. 걷다 보면 편안해지고 자연스레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동네였다. 1904년 이후 외국인들이 터전을 잡고 이곳이 역사, 문화, 선교 등 교육 구제 사업에 적합함을 예견했듯 100여년이 넘은 양림교회와 기독병원,수피아학교 등을 통해 도시에서 보기 힘든 교육과, 선교사업, 독립운동을 통한 역사의식을 고취한 곳이다. 또 100여년이 넘은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진, 늘 꽃이 만발한 양림동은 사람들의 휴식과 위안이 되는 공간으로 산책길과 생태숲, 골목길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마을이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풍요와 더불어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져 삶의 터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역사적 가치를 지키며 근대문화 역사 마을이 된 것이다.

지금의 양림동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화라는 허울을 쓴 채 외관만 도시재생, 도시환경정비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림동의 정신적 가치, 근대 이후 설립된 보물 같은 건물들을 잘 보존하는 내면의 가치를 살리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

양림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공터 입구나 골목 초입엔 평상이나 허름한 의자들이 새 모이마냥 놓여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동네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나 젊은이들과 이야기도 나누는 아지트다.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처럼 급변하는 마을에서 변하지 않고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터줏대감의 포스가 절로 느껴진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공공장소의 교통 약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런 부분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도시 재생이 이뤄지면 어떨까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해 본다.

그 첫걸음으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에 주목하고 준비했으면 한다. 배리어프리는 접근성이 떨어진 사회적 약지를 위한 시설 또는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양림동도 어느 도시에서나 하는 일회성 치장이 아닌 인간의 존엄, 삶의 가치, 기존 시설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들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란다.

예술가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그대로의 그 자체에 질서와 평화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뜬다. 이 소소한 것들, 아기자기한 것들을 통한 일상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며 양림동을 걷고 바라보자. 내가 사는 양림동은 느릿느릿 걸으며 명상하고 철학하는, 걷기 좋은 마을이 되면 좋겠다. 양림동을 찾는 사람들이 소박한 사랑을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